

08 치유와 위로의 미술

자각
소통
치유
완결

- 현대 사회에서 치유와 위로의 역할을 하는 미술을 이해할 수 있다.
- 미술 활동으로 마음의 치유와 정서적 위로를 느낄 수 있다.



▲ 로스코(Rothko, Mark / 러시아 → 미국 / 1903~1970) (좌) 무제(캔버스에 유채 / 195×172.1cm / 1953년) (우) 무제(캔버스에 유채 / 151×126.4cm / 1955년)
크고 모호한 색면과 불분명한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로스코의 작품은 색채의 깊이감으로 감상자를 그림 속에 끌어들이고 그림과 정서적 유대를 갖게 해 준다.

감상을 통한 치유와 위로의 미술

우리는 미술 작품을 보며 아무런 느낌이 없이 무덤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품이 전달하는 이야기에 공감하여 감정이 북받쳐 오르거나 짜릿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간접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적 위안을 얻기도 한다.



·생각 열기

미술 작품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받은 적이 있는가?

복잡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미술 작품을 감상 하며 큰 위안을 받기도 하고, 미술 참여 활동을 통해 카타르 시스를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한다. 이는 미술이 무감각해진 우리의 감정을 일깨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샤갈(Chagall, Marc / 러시아 → 프랑스 / 1887~1985) 산책(캔버스에 유채 / 175.2×168.4cm / 1917~1918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듯 행복한 사랑에 몰입된 연인들을 묘사하여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표현하였다.



▲ 그레이(Grey, Alex / 미국 / 1953~) 심장 그물(혼합 재료 / 가변 설치 / 1998~1999년) 관람자들이 간절한 소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적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작품이다.



▲ 프랑스 파리 테러 추모(2015년) ① 슬로바키아 ② 캐나다 ③ 미국 세계 각국의 건물 외벽에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3색 조명을 밝혀, 파리 테러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을 애도하는 추모에 동참하였다.

스스로 평가

-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
- 미술 작품에 참여하며 개인과 사회에 위안을 주는 미술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않더라도 정서적 공감을 표출하는 행위를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 의식을 드러내어 현대 사회 현상과 문제 등의 사회 변화에 동참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미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위로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 김서경(한국 / 1964~), 김운성(한국 / 1965~) 평화의 소녀상(청동 / 높이 130cm / 201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민 모금으로 세운 동상이다. 소녀상 옆의 빈자리는 그 당시의 어린 소녀의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소녀상에 꽃을 놓음으로써 사회 문제에 동참하고 공감하게 한다.



창의융합 활동

마음의 치유를 위한 젠탱글 그리기

젠탱글(zentangle)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진 그림으로, 낙서하듯 그리다 보면 집중력 향상과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다. 젠탱글을 그리며 정서적 위로를 느껴보자.



▶ 전해선(학생 작품) 우리가 바라는 것(접시에 펜 / 지름 16.3cm) 꽃처럼 환하게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접시에 젠탱글로 표현하였다.

▶ 이시연(학생 작품) 소망 풍등(한지에 수성펜) 풍등에 소망을 담아 젠탱글로 표현하였다.

